

Cat is not a small dog!

캣츠앤독스 동물병원
이 미 경

개와 고양이는 분명 다른 동물이다. 같은 질병으로 진단되어도 진단근거, 치료법, 영양 보조법, 예후 등이 다를 때가 많다. 우리 병원에 고양이환자가 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고양이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고양이와 그 보호자에 대한 차별화된 배려와 애정을 준비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개와는 다른 고양이만의 세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고양이의 눈높이에서 수의사인 나를 돌아보자.

사례1. 사나운 고양이가 우리병원에만 물리는 이유?

동료수의사들과 만나다 보면 “그렇게 사나운 고양이들을 어떻게 진료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분명 사나운 고양이는 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단순히 고양이임상의 어려움을 넘어서 “그래서 고양이는 진료하기 싫다.”라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강하게 배어있을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료들 만날 때마다 매우 안타깝다. 이 동료의 머릿속에 고양이는 이미 다루기 힘든 동물로 낙인 되었고,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담기지 않은 수의사의 몸짓과 표정은 고양이보호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지사지로 돌아봐야한다. 아기를 싫어하는 소아과의사에게 누가 자신의 사랑스런 아기를 데려가고 싶겠는가? 병원에 간 아기가 울고 발버둥친다고 마취제를 고집하는 소아과의사에게 100% 동의하고 믿음을 줄 수 있을까? 고양이임상은 소아과진료와 흡사한 점이 많다. 병원에 간 아기가 울고 떼쓰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볼라.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병원에서 공격행동을 보이는 고양이의 심정은 뭘까? “불안하고 공포스럽거나”, “아프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의 환경이 고양이진료에 적절한지 둘러보아야 한다. 진료테크닉이 고양이에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편안하지 않은 진료환경과 테크닉은 사나운 고양이를 낳을 뿐이다. 고양이는 왜 동물병원을 불편해할까?

key point

- 개는 집단생활동물이지만, 고양이는 영역생활 동물이다.
- 고양이를 진정시키는데 있어 핵심은 “항불안”이다.

사례2. 졸지에 인슐린의존당뇨병 환자가 된 고양이의 항변.

12살 된 고양이환자가 왔다. 최근 들어 움직이지 않는다며 보호자는 건강검진을 원한다. 병원을 매우 싫어해

지난 3년 동안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신체검사서에서 특별히 의심되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 혈액검사를 했다. 혈당이 380mg/dl이다. 당뇨병이 의심되었다. 오줌검사를 한 결과 케톤뇨가 없는 강한 요당이 검출되었다. 즉시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료로 교체하고 하루 두 번 NPH를 주사하였다. 그런데 혈당이 최저 23mg/dl에서 최대 401mg/dl까지 널뛰기를 한다.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기 너무 힘들다. 일주일 사이 저혈당쇼크를 10번이나 경험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key point

- 사람만 white coat syndrome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고양이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심리적, 생리적, 혈액화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사례3. 왜 이리 췌장염에 걸린 고양이가 많은 거야?

2살 된 페르시안 고양이가 응급으로 실려 왔다. 최근 식욕이 줄어들다 이를 동안 심각할 정도의 구토를 보였 단다.

혈액검사서서 총단백 9.2mg/dl, creatinine 2.6mg/dl, BUN 55mg/dl, amylase 2830u/l이다. 그리고 보니 복부통증도 느껴진다. 췌장염으로 진단내리고 추이를 지켜보기로 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음... 요즘 고양이 췌장염이 꽤 많네.” 과연 췌장염일까?

key point

- 고양이는 엄격한 육식동물이다.
- 개와는 다른 생리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혈액검사에서도 차별성을 가질 때가 많다.
- 고양이만의 특이한 혈액검사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례4. 신부전 고치려다 지방간으로 사망한 고양이.

5살 된 한국토종고양이가 체중이 빠진다고 내원했다. 한달 사이에 6kg에서 5.2kg으로 말라버렸다. 종합검사를 해보니 질소혈증을 동반한 만성신부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행히 빈혈이나 고인혈증은 심하지 않다.

신부전환자를 위한 처방식을 권유하고 통원치료를 결정했다. 처방식을 너무 싫어한다는 보호자의 하소연이 있었지만, 처방식을 먹지 않으면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몇 번씩 강조했다.

크레아티닌은 서서히 떨어지는데 환자는 점차 말라가고 무기력해진다. 결국 황달을 동반한 지방간과 극심한 빈혈로 사망하였다. 정해진 운명일까?

key point

- 고양이는 엄격한 육식동물이다.
- 때론 무엇을 먹는가보다 먹는다는 사실이 중요할 때가 있다.



사례5. 고양이치과보험이 탄생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병원은 칫솔질과 스케일링, 정기검진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고양이가 오면 수의사 스스로 칫솔질을 해야 하는지,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지 주도적인 설명을 생략할 때가 많다. 고양이 입을 아무리 들쳐 봐도 개만큼 턱지턱지 치석이 많은 환자는 별로 없었다. 개의 치과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성은 뼈 속 깊이 느끼지만, 고양이는 잘 모르겠다. 고양이는 신이 선물한 건치를 가진 걸까?

key point

- 고양이는 hypersensitivity animal이다.
- 고양이 구강질환은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특별관리구역”이다.

사례6. “생명의 물, 기적의 물”

건강한 체구와 육중한 몸매를 자랑하는 수고양이가 두 달에 한 번씩 폐쇄하부요기질환으로 병원에 실려 온다. 검사 상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는 특발질환으로 진단 내렸다. 플러그를 분석해봤지만 혈구와 스트루바이트, 점액단백질만 확인될 뿐이다.

1년 가까이 요도카테터와 내과치료, 처방사료로 다스려왔다. 밥 먹듯이 재발했지만 수의사의 정성을 이해한 보호자는 잘 견뎌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의 발걸음이 뜬해졌다. 결국 다른 병원에 갔나 가슴이 저려온다.

팔 개월 쯤 지나 그 고양이와 보호자가 반가운 얼굴로 병원을 찾았다. 수고양이는 몰라보게 살이 쭉 빠져있다. 팔 개월 동안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낳았을까?

key point

- 고양이는 비뇨기질환 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동물이다.
- 사람과 공동생활을 하는 고양이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물이다.
- 물은 상부비뇨기질환과 하부비뇨기질환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